촬영본 정리 도우미 「감독버핏」 개요

코딩을 모르는 영상 작업자가 AI(Claude Code)에게 말로 지시해 만든 업무 도구 · 업무 생산성 분야

□ 단추 하나로 도는 흐름

1 보기	2 재기	3 듣기	4 보이기	5 판단	6 사람 확인	7 넘기기
파일·길이·카메라 표 (카메라 97% 자동 판별)	노출·흔들림·초점·소리를 숫자로	인터뷰를 글로 받아쓰기 (내 컴퓨터 안에서)	장면 사진 시트	AI가 OK·보류·NG 후보 + 꼬리표 제안	틀린 것만 뒤집기	폴더 정리 → 리졸브 타임라인

■ 내 컴퓨터가 자동으로(비용 0) ■ AI 판단(유료, 이 한 곳만) ■ 사람이 결정

□ 실제 촬영본으로 잰 결과

촬영본	규모	사람 손 없이 걸린 시간	결과
가수 인터뷰	22개 파일 · 104분 · 287GB	약 80분 (측정 15 · 받아쓰기 60 · 기타 5)	OK 18 · 보류 3 · NG 1 인물 6 · 사물 6 · 시설 4 · 풍경 4 …
도서관 취재	86개 파일 · 43GB	22분 + 분류 확인 10분	측정 방식 개선으로 재기 단계 5배 빨라짐
편집 연동	고른 컷 → 다빈치 리졸브 타임라인 자동 조립		컷 시각 오차 최대 0.034초 (1프레임 이하)

□ AI가 틀렸을 때 → 규칙으로 바꿈

- 배경 흐린 인물 클로즈업을 '초점 나감'으로 오판
→ 이 판정은 **후보로만** 쓴다
- 화면만 보고 인터뷰 대상자를 잘못 짐작
→ 신원은 **받아 적은 말로만** 확인한다
- 오래 조용하면 '멈춘 것'으로 보임
→ 긴 작업은 시작 전에 미리 알린다

□ 책임 있게 쓰는 원칙

- **지우는 일은 사람만.** 원본 삭제는 압축본 4단계 검증 후 사람이 확인
- **원본 영상은 밖으로 안 나감.** 받아쓰기도 내 컴퓨터에서
- **AI는 후보, 결정은 사람.** 사람은 뒤집는 사람
- **기준은 쓰는 사람의 판정에서 자란다** 메모장으로 고침

□ 누구나 따라 하는 3단계

①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을 단계별로 말로 적는다 ② AI에게 한 단계씩 만들게 하고 내 자료로 바로 시험 ③ 틀린 판단은 "왜 틀렸는지"를 규칙으로 다시 알려 준다

쓸 수 있는 곳: 유튜버 · 웨딩 촬영 · 지자체·기관 홍보팀 · 학교 방송반 — 촬영본이 쌓이는 모든 곳

이 자료에는 촬영본 화면, 출연자 얼굴·실명을 넣지 않았습니다. 숫자는 모두 실제 촬영본(2026년 9월)으로 잰 기록입니다.
사용 도구: Claude Code(Anthropic) · faster-whisper · DaVinci Resolve 스크립트